

남도문화 DVD 타이틀 개발에 관한 연구

최 훈* 이승현**

(choihoon@red.dongshin.ac.kr, 061-330-3665)

요 약

지방자치 시대에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21세기에 문화재 홍보용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중요 문화재에 관련 콘텐츠화는 추진중이나 향토문화재에 대한 콘텐츠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문화재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다변화로 다양한 기술력과 용량증가로 대용량 저장매체가 필수적이어서,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저장 매체인 DVD 관련 기술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차세대 저장매체인 DVD를 활용해서 콘텐츠 개발을 한다. DVD의 특성, 타 매체와의 비교분석, 사찰문화 콘텐츠 개발현황을 파악한 후 콘텐츠 개발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DVD 특성을 활용해 개발하면 대용량의 문화재 관련 자료를 저장 및 분석하고, 우리 문화재를 콘텐츠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문화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초등학교, 재외국인 학교 등의 한국적 특색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며, 해외의 관광 홍보용 및 문화재 유물 보관용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 동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동신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